



# 제주-육지 작가 잇다… '빈공간서 빈공간으로'

아트스페이스 빈공간

4~10월 전시프로젝트

원도심서 매달 전시

시각예술·연극 담론

'제주 작가'와 '제주 밖 육지 작가'를 연결한다. 그리고 '시각 예술'과 '타 장르 예술'을 잇는다. 제주시 원도심 무근성에 자리한 복합 문화공간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이 이달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전시 프로젝트 '빈공간에서 빈공간으로'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젝트는 도내 작가와 타 지역 작가를 연계한 전시 형태로 진행된다. 시각예술가이자 빈공간을 운영하는 이상홍 대표는 '제주라는 공간이 지리적으로 한정적이다 보니 작가들이 자신의 작업에 대해 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 장르에서 벗어나 공간에 상관없이 예술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다'며 "공간과 예술에 관심있는 도민들도 누구나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전했다.



이달 27일까지 이뤄지는 '빈공간 오픈 스튜디오 2025'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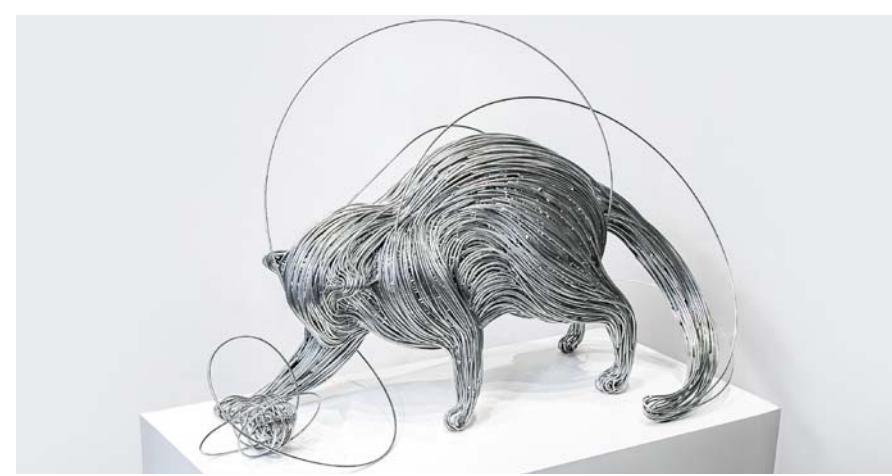
으로' 보고전을 끝으로 프로젝트는 마무리된다.

전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도 마련된다. 일반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타 장르 예술가들을 초대해 함께 전시를 보고 예술 담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연극에서 배우·연출가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두영, 윤혜진, 김정, 문일수, 유성재가 참여한다.

이달 27일까지 열리는 '빈공간 오픈 스튜디오 2025' 전시에서는 이상홍, 박해빈, 김을, 김태현, 한용환 등 5명의 작가가 사진, 드로잉, 회화, 오브제 등 작품 70여점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 관람은 휴무일 없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사전예약을 하면 오후 9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트스페이스 빈공간(전화 0507-1347-8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무의식 속 억압된 감정 예술로 풀어내다

### 제주 미술대전 대상

#### 김다슬 작가 개인전

2025 제주도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한 김다슬 작가가 첫 개인전을 연다.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트 지하 1층 제주갤러리에서 열리는 초대전 '생존의 방식-온유하게'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조각 작품 13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개인적인 트라우마와 무의식 속 억압된 감정을 예술로 풀어낸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형태의 탐구, 질료 실험을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제주갤러리 측은 "작가의 작품은 전통적인 장인정신에 기반한 반복적인 노동과 형상 구축을 통해 새로운 생명성을 표현한다"며 "금속의 단단한 속성과 육선의 유연함은 그의 작품에 영원한 생명성과 순환성을 암시한다"고 전했다. 박소정기자

## 책과 마을을 잇는 제주 작은도서관 축제

책과 마을을 잇는 제주지역 작은도서관의 의미를 새기는 축제가 열린다.

제2회 흰 모영 작은도서관(총 100·모·작)이 20일 낮 12시부터 오

후 4시까지 한라도서관에서 열린다.

한라도서관과 제주도서관친구들, 도내 49개 작은도서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이번 축제는 '흰 모영 작

은도서관'을 주제로 전국의 우수 특성화 사례를 공유하는 심포지엄 '작은도서관 특성화로 미래를 보다'를 비롯해 독서체험, 전시, 부대 행사, 도서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제주도민이 추천한 '빛나는 100책' 선포도 이뤄진다.

독서체험은 동화책 팝업북 만들기, 그림책 퀴즈, 하브루타 질문돌이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외 마당에서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야외도서관과 가족이 함께하는 흰모영 어린이 장터, 인생책 컷 등이 펼쳐진다. 박소정기자

## 문화가 쪽지

### 송문주 '겹쳐진 순간들' 전

사진작가 송문주의 개인전 'Layed Moments-겹쳐진 순간들'이 이달 20일까지 제주경찰청 1층 '풀리리' 전시공간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꽃과 나무를 중심으로 한 자연의 이미지들을 통해 겹쳐진 시간과 감정의 층위를 사진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송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찰나의 빛, 스쳐가는 바람, 그 아래 조용히 피어나는 자연의 장면들 속에 말없이 쌓여가는 수많은 순간들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전시 관람은 무료.

### 예술로 이어진 '반려와 나'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이달 20일 예술공간 이아에서 예술과 반려문화를 결합한 정서적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아이위드 펫(Pet)'을 연다.

프로그램으로는 '나의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드로잉과 업사이클 양말목을 활용한 공예 체험, '우리는 굴명방이 유기견 아이들'의 저자인 구낙현 작가의 강의도 마련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에 한해 진행되며 강연은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사전 신청은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 또는 예술공간 이아 인스타그램을 통해 할 수 있다.

### '한라산부터 시작합시다' 전

이선희 작가의 열한 번째 개인전 '아무튼, 한라산부터 시작합시다'가 이달 22일까지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한수풀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여수에서 제주로 이주한 작가가 2년 전부터 담아온 제주시리즈 8편 중 한립읍 협재 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애월 한 담해안로, 거문오름 등 4편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올해 제주시 원도심 문화의 거리 입주 작가로 선정돼 도민들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표초금 개인전 '경계의 시간'

제주 표초금 작가의 개인전 '경계의 시간'이 이달 19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제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자연과 인간 내면의 심리적 연결을 시도하며, 풍경화가 가지는 다차원적 표현 가능성을 제시한다.

표 작가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며 현재 제주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제주문화가협회, 제주가톨릭미술가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 생태미술 체험 '아트 포레스트' 운영

서귀포시는 어린이와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연과 미술을 융합한 생태미술체험 '아트 포레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서귀포예술의전당 문화예술교육 '서귀포아트 스쿨'의 일환으로 생태자연과 미술 체험을 통해 어린이와 장애 청소년들의 생태 감수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숲, 공원 등 생태현장을 방문해 계절의 변화에 맞춰 자연물을 채집하고 그리기, 만

들기 등 다양한 미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초등 1~3학년 어린이 10명, 장애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제주의 봄과 여름을 주제로 총 10회 운영된다.

7월부터 운영될 하반기 '아트 포레스트'는 어린이와 장애 청소년, 임산부 수요를 반영해 대상을 확장해 가족 친화적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 김수열 시집 '날흔'

#### 20일 문학관서 북토크

제주문학학교는 이달 20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김수열 시인 초청 북토크를 연다. 김 시인의 시집 '날흔' 출간을 기념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북토크는 서안나 시인의 대담으로 진행되며, 김 시인의 작품 낭독과 집필 배경에 대한 대담, 판객과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사전 접수는 네이버폼(https://naver.me/x9BguYli)을 통해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작가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질문도 함께 접수받는다. 박소정기자

## 기획보증보험 2억원 가입 업체(전업체)

# 제주직항 전세기 라오스 5일 비엔티엔+방비엥 핵심관광

동남아의 흑진주  
뉴욕타임지가 선정한 힐링투어 1위 관광지  
일자: 1차 6월 6일 2차: 8월 14일, 3차: 10월 6일,  
4차: 12월 24일  
1인 1,290,000원  
기사봉사료 30\$ 포함, 기내식 1회 제공



협찬: 제주항공

라오스 골프  
1인 1,650,000원

※ 알 국가 국토교통부 허가에 따라  
포함사항: 국제 항공료(TAX+유류합증료), 숙박료(2인1실), 식사/운송/입장료, 가이드/기사 비용, 여행자보험료  
불포함사항: 기타개인비용, 현지선택관광, 부가세(VAT)

예약 문의 열린여행리더클럽연합사

코믹 여행사 724-0161 문주란여행사 748-0304 에프엠여행사 702-1950  
여행사 711-0009 이제이투어 748-8155 놀푸른여행사 726-3344